

## 철학사

### 15 에피쿠로스 철학 (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오늘은 에피쿠로스 학파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 먼저 키레나이 학파에 대해 몇 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키레나이 학파와 나중에 살펴볼 키네이코스 학파는 모두 카우프만이 이 시기에 대한 자료 서문에서 소크라테스 학파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글을 읽거나 그들에 대해 알게 되면, 소크라테스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적 요소는 단지 출발점일 뿐, 합의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키레네 학파와 키니코스 학파 모두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격언,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이는 물론 영혼의 수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기 이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는 키레네 학파와 키니코스 학파에게도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은 아니었지만, 영혼이란 무엇이며 영혼을 수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바는 현저히 달랐습니다. 특히 키레네 학파는 쾌락주의 자라는 점에서 두드러지게 대조적입니다 .

다시 말해, 좋은 것은 쾌락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개인적인 쾌락 추구였기에, 이기적인 쾌락주의였습니다. 나의 쾌락, 이기적인 쾌락주의의 말입니다.

하지만 윤리학의 역사에서 그들은 최대한의 쾌락, 최대한의 강도, 최대한의 즉각성을 옹호하는 최초의 명확한 사상 학파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의 쾌락, 최대한의 강도, 최대한의 즉각성. 일종의 극단적인 쾌락주의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에서 어떻게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걸까요? 자기 자신을 아는 목적은 무엇이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지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 즐거움을 주는지, 무엇이 쾌락을 주는지 알게 되면 쾌락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해는 쾌락주의적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키레네 학파를 아는 것은 감각 경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쾌락을 느끼거나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다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즐거운 감각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갈망한다. 우리가 나쁘다고 부르는 고통스러운 감각들을. 우리는 그것들을 피하려고 애쓴다.

그리고 그 감각이 주로 신체적인 것에 기반한 것임을 암시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사람들이 무엇을 즐긴다는 보편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각 개인이 자신을 위해, 즉 스스로에게 최대한의 쾌감을 추구할 뿐입니다.

자, 몇 가지 단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절제되지 않은 과음이 전날 밤의 숙취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절제되지 않은 과음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과 주변 환경을 통제하라. 그런 면에서 합리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물론, 합리적이라는 것은 쾌락주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알겠죠? 방금 묘사하신 내용은 키레네의 아리스토포스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키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고, '키레네인'이라는 용어는 바로 그 지역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이름이 전해지는 또 다른 인물은 헤게시우스인데, 그는 쾌락주의자이면서도 삶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다시 말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은 고통이 완전히 없는 상태이며, 쾌락을 잉여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생에서. 가장 행복한 결과는 고통 없는 삶이니, 최선의 방법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자살 상담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학생 수가 줄어들어 교직에서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 이죠. 하지만 흥미로운 결과이기도 합니다.

종류의 사례는 이것 하나뿐이 아닙니다. 우선 자살 윤리에 관한 문헌이 상당히 많습니다. 헤게시우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20세기에 들어서는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 알베르 카뮈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 사이에는 수많은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은 대개 쾌락주의적인 이유로 그렇게 합니다. 쾌락주의적인 이유로 말이죠.

다시 말해, 고통을 최소화하고 쾌락을 극대화하고 싶은데, 쾌락의 과잉이 불가능하다면,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이해되지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그런 합리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키레네 학파는 쾌락주의 윤리의 흥미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형태였지만 곧 온건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키레네 학파는 점차 성장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에 흡수되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보다 온건한 형태의 쾌락주의입니다.

좀 더 온건한 버전입니다. 에피쿠로스주의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인물은, 당연히 이 학설의 이름이 된 에피쿠로스와 1세기 로마 시인 루크레티우스입니다.

루크레티우스. 그의 작품 《사물의 본성》은, 아, 아주 긴 철학시입니다. 무운시 번역본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계론적 우주론 전체를 묘사하고, 그로부터 감각 지각 이론, 윤리 이론, 그리고 정치 이론까지 모두 하나의 거대한 무운시 안에 담아낸 시에 관심이 있다면, 꼭 《사물의 본질》(The Nature of Things)을 읽어보세요. 《사물의 본질》이라는 제목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현대의 몇몇 판본에서는 《우주의 본질》(The Nature of the Universe)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제목 역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냥 '사물의 본질'이라는 제목보다 좀 더 듣기 좋게 들리는 것뿐이에요. 사물이란 무엇일까요? 음, 아시다시피, 우주 전체, 모든 것이죠. 그리고 시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에피쿠로스의 시, 즉 사물의 본질에 관한 시는, 오히려 루크레티우스의 시는 기원전 3세기에 에피쿠로스가 했던 작업을 체계화하고 더욱 발전시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크레티우스는 기원전 1세기에, 에피쿠로스는 기원전 3세기에 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조하는 쾌락의 개념을 그들은 아타락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아타락시아. 그리스어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알파 부정 접두사를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사 tarasso는 괴롭히다, 귀찮게 하다, 휘두르다, 두들겨 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의한 대로, 아타락시아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괴로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육체적 고통과 영혼의 괴로움으로부터의 해방. 그러니까 쾌락과 고통에 대한 문제는 몸과 영혼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알겠죠? 육체적 고통과 영혼의 괴로움으로부터의 해방.

에피쿠로스가 위궤양을 앓았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을 피해야 했고, 따라서 적어도 쾌락주의의 육체적인 측면을 절제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모든 방해 요소, 불만,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난 만족스러운 삶. 바로 그런 이유로 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는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강조합니다. 쾌락의 양적인 차이를 생각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이것은 저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이것은 저것보다 더 즐겁다. 하지만 일단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그 차이가 단순히 양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잇몸에 마취제를 투여하는 치과 의사가 그렇지 않은 치과 의사보다 통증을 덜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적으로 비교하는 건 아주 쉽죠. 하지만 치통과 버림받은 연인의 고통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전혀 다른 종류의 고통이잖아요.

어떻게 비교하나요? 질적인 측면을 비교하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높은 품질과 낮은 품질이라는 질적인 차이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고품질과 저품질의 대립. 여기서 고품질의 즐거움이란 물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좋은 친구들과의 교제, 그리고 교육에서 오는 즐거움입니다.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는 즐거움. 끊임없이 과식하는 대신 자연이 요구하는 것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고귀한 즐거움이다.

요점은 고차원적인 즐거움이 본질적으로 더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더 본질적으로 즐겁다는 것이죠. 우정처럼 말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배움. 등등.

더욱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이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쾌락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이 이러한 쾌락주의를 형이상학에 기반을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형이상학은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 즉 원자론적 유물론입니다. 데모크리토스를 기억하시나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그것들을 손쉽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었죠. 하지만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것이 빈 공간 속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 다원론자였습니다. 어떤 우주적 소용돌이가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원자들을 휘몰아치게 한다는 거죠.

그것들은 결합하여 더 큰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연한 과정의 결과로 생성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 음, 아주 아주 비슷하지만 루크레티우스와 에피쿠로스 사이에는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

다시 말해, 우주의 소용돌이가 모든 것을 휘몰아치는 대신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더 명백해 보이는 경험적 관점을 취합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원자들의 자연스러운 운동은 단순히 수직 낙하, 수직 낙하인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들이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 자, 이제 그가 어떻게 그 이론을 발전시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살펴보겠습니다. 454 페이지부터요. 그가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러한 종류의 유물론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그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다시 유행하게 되었고, 당시 일어난 과학 혁명과의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6세기와 17세기에는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가 주도하고 뉴턴이 체계화한 과학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기계론적 설명으로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

그래서 물리적 우주 전체는 물질 입자의 운동, 즉 물리적 힘의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됩니다. 그리고 그 과학의 옹호자들은 데모크리토스를 아주 자유롭게 인용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감명을 준 인물로서 말입니다. 실제로 철학자들, 특히 프랜시스 베이컨과 토마스 홉스를 살펴보면 그들 역시 데모크리토스를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적 원자론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림은 지속적인 중요성을 지닌 그림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시대에 맞게 수정되기도 했지만요.

네, 454번을 보세요. 첫 번째 열의 454번입니다. 가운데 단락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우선 이 점을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무언가가 생겨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고전 격언입니다.

로마 사상에서도 고전적인 개념입니다. 라틴어로 *ex nihilo nihil* , 즉 무에서 유가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무에서 유가 생겨날 수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유가 생겨날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모든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이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징입니다. 원소는 영원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자가 영원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원자와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원자와 빈 공간은 영원해야 합니다. 창조되지 않은 것이죠. 알겠죠? 이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는 다음 단락에서 이와 같은 논리를 이어갑니다. 그는 존재 전체가 몸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단락에는 만물의 총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합니다 . 그리고 빈 공간의 크기도 무한합니다. 원자의 무수함, 빈 공간의 크기.

유한한 수가 아니라 무한한 수입니다. 광대하고 끝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매우 간단합니다 .

455번 문단의 첫 번째 완전한 내용입니다. 원자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영원토록.

그리고 다음 단락에서는 원자와 공허가 영원부터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나중에 그는 원자와 공허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약간씩 다릅니다. 나중에 457번에서, 확인해보시려면 457번을 검색해 보세요. 그는 모양 은 다르지만 크기는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무게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다. 관찰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그게 전부다.

그는 매우 중요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차적 특성과 2차적 특성 사이의 구분입니다. 나중에 이러한 용어들이 사용되게 됩니다 .

1차 속성은 공간적 속성입니다. 크기, 모양, 공간 점유율, 밀도, 따라서 무게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2차 속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특정한 감각 기관을 통해 인지하는 속성들을 말합니다. 색깔, 냄새, 맛, 소리, 촉감, 질감 같은 것들이죠. 부차적인 속성들이 아닙니다.

속성, 즉 물리적 실체를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이차적 속성은 주관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의 경험에 따른 특성일 뿐입니다. 주관적입니다. 오직 당신의 경험에 따른 특성일 뿐입니다.

그러한 구분을 하려면 감각 지각에 대한 이론이 필요합니다. 감각 지각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차적 속성은 모두 주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 감각 지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시합니다.

455페이지 두 번째 열 맨 위. 새 단락. 그가 "고체와 같은 모양이지만 매우 얇은 윤곽선이나 막이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이런 투명한 막은 마치 물체에서 벗겨지듯 떨어져 나옵니다. 투명하면 색깔도 없고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 영상들은 공간을 이동하며 감각기관, 예를 들어 눈을 통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인지됩니다. 몸 안에서 인지되면서 영상은 수축하지만, 형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색깔도, 냄새도 없이 형태를 인지합니다.

이차적 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차적 속성은 과정에서 생성되는 우리의 경험의 속성이자, 외부 사물의 속성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17세기 후반 존 로크의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차적 속성은 궁극적으로 정신, 뇌, 그리고 우리의 신체 기관과 결합된 물리적 자극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순전히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주관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객관적인 실체가 없다. 결국, 이 유물론적이고 기계론적인 우주에서, 테니슨의 시구처럼, "내가 이토록 죽은 것을 받아들여 내 필멸의 행복을 위해 쓸 수 있을까?" 무색, 무취, 무감각한 이 죽은 물질 세계.

이해되지요? 바로 이런 그림이 나중에 발전하는 것이고, 에피쿠로스의 글에서도 암묵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빈 공간은 모든 방향으로 무한합니다. 원자들은 공간에서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자들이 어떻게 충돌하여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바로 결합을 통해서입니다. 루크레티우스는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원자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때때로 아무런 이유나 원인 없이 궤도를 이탈하는 원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루크레티아인들은 방향을 바꿉니다. 마치 야구에서 멋지게 휘어지는 공처럼 말이죠. 그렇게 휘어지는 공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휘어지는 원자는 고속도로에서의 충돌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돌이 거듭되고, 조합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다소 허황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가 말하려는 것은 자연에는 불확정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연에는 불확정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인과적 불확정성이라는 요소 덕분에 우리가 인간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끊어지지 않은 인과적 구조에 틈이 생길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바로 그 인과적 불확정성이 우리가 자유로운 행위라고 생각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이 완성됩니다.

459페이지로 한 걸음 더 가보세요. 459페이지 말입니다. 두 번째 칼럼 맨 아래 영혼은 가장 매끄럽고 둥근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편집자 주석이 있습니다.

가장 매끄럽고 둥근 원자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혼에 대한 유물론적 관점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는 영혼의 일부는 비이성적이며, 몸 전체에 흠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성적인 부분은 가슴에 자리 잡고 있으며, 두려움과 기쁨 등에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영혼은 육체적으로 구성되어 온몸에 스며드는 생명력 있는 존재입니다. 죽음에 이르면 영혼, 즉 작고 둥글고 매끄러운 원자들은 물질적인 존재가 되므로 육체에서 쉽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므로 불멸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쾌락의 경험을 설명합니다. 영혼의 원자가 매끄럽고 둥글다면 고통을 느낄 것이고, 거친 원자로 인해 놀리고 뽀족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론 등에서 접할 수 있는 매끄럽고 둥근 원자들은 편안하고 즐거운 감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을 경험하는 데에는 생리적인 원리가 깔려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성이란 무엇일까요? 이성은 간단히 말해 마음, 즉 영혼의 활동이며, 물리적 과정에 의해 발생하지만, 우리의 경험을 조직화하고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조직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사물을 조직화 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그 결과는 순전히 관습적인 언어 사용 방식입니다. 단어들은 그저 관습적인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하지만 단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동체, 어떤 사회에서든 경험을 조직해 온 방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물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하는 방식, 즉 사물에 대한 우리의 이론적 이해는 순전히 관습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오늘날의 과학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는 과학에 대해 관습주의적인 관점을 가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가장 훌륭한 과학적 이해는 단순히 사회적 관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관습적인 방식. 이는 과학의 역사를 통틀어 20세기까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견해입니다. 물론 유일한 방식은 아니지만, 자주 등장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헤로도토스에게 보낸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62쪽과 63쪽에 나오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걱정이 없다면 죽음은 마음을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후 세계가 없다면 육체적인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육체적인 고통도 없고 정신적인 괴로움도 없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나 골칫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동양 종교와 신비 종교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시대에,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인식은 일부 헬레니즘인들과 로마인들 사이에서 오히려 환영받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일종의 해방감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는 다음 '주요 교리'라고 표시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처음 몇 페이지는 쾌락주의, 즉 쾌락 추구와 그것이 어떻게 절제되면서도 지속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싶은 것은 마지막 페이지인 466페이지에 나오는 정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의에 관해서 말하자면, 개인주의자가 타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개인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보다 세련된 쾌락주의를 가진 사람이 고통보다는 쾌락을 낳는 온갖 불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 그러한 즐거움이 확실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으로 보장되려면 질서 있는 사회가 필요 합니다 .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466쪽 31항의 첫 번째 문장을 보라.  
1. 자연적 정의는 실용성의 표현이다.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를 입는 것을 막는 것이다.

편의주의적 표현. 33. 절대적인 정의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상호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해악을 가하거나 고통받는 것을 막는 것이죠. 따라서 정의는 순전히 관습적인 것입니다.

악이 아닙니다 . 불의 자체에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결과적인 측면에서만 그렇다. 불안감 이 불러일으키는 공포 속에서 . 처벌을 받은 자들이 그 불의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공포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관습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관습적인 과학뿐만 아니라 , 관습적인 윤리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관습주의적 윤리. 다른 근거는 없다. 어차피 우리가 맹목적인 물질적 힘에 의해 움직이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원자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기본적인 공간적 속성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쾌락 추구를 넘어서는 윤리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그런 윤리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에 대한 관심은 어떤 본질적인 권리 때문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단지 사회적 효용의 문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순전히 관습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쾌락적 결과라는 측면 외에는 다른 견제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바로 체계적으로 발전된 형태의 쾌락주의입니다.

에피쿠로스의 루크레티우스처럼 말이죠. 그리고 17세기 토마스 홉스에게서도 그와 매우 유사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중에 17세기 영국 문인 토머스 홉스를 아시는 분이 있나요? 그는 오늘날 정치 이론가로 가장 잘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그는 우주와 인간 본성에 대해 유물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모크리토스와 비슷한 일종의 원자론적 관점입니다. 쾌락주의적 윤리관이죠. 쾌락과 고통에 대한 생리학적 설명에 기반한 윤리관입니다.

사회 정의에 대한 개념은 일종의 사회 계약에 기반한 관습적 체제이다. 이는 자기 보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쾌락주의적 삶에서 최소한의 필수 요소는 무엇인가?

그래서 루크레티우스는 유물론적 체계에 대한 일종의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사상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일종의 형이상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아니지만, 같은 종류의 윤리로 이어진다. 특정한 종류의 형이상학이 같은 종류의 윤리로 이어진다. 물론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두세 가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흔하게 쾌락주의적 윤리는 유물론적 형이상학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채플 박사님. 루크레티우스는 기적을 인정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일종의 지름길이었을까요? 저는 그가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가 자연 법칙에 대해 충분히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요.

자연적인 것과 기적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문제가 보이시죠?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단순히 관습적인 구분에 불과하다면 말입니다.

현상에 대한 관습적인 조직화. 그런 다음 그는 어떤 특이한 행위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음, 또 다른 분류 작업이 필요하다.

루크레티우스가 신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시적 전통을 구분하기가 때때로 어렵습니다. 하다.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도요. 그가 신들을 언급하는 것과 신들을 소환하는 것을 구분 짓는 한에서 말입니다.

그는 그들을 기껏해야 육체적이고 필멸의 존재로 여긴다. 능력이 매우 제한적인 존재로 말이다. 물론 그들이 초인적인 능력을 가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왜 그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곧 알게 될 겁니다. 사실 루크레티우스는 자신이 이 글을 쓰는 주된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억압해 온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죠. 미신적인 두려움이라는 굴레 말이에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자넨.

그는 영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영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그리스인들처럼 그도 그랬습니다. 그는 영혼과 생명을 연결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생기론자들과는 달리, 그는 영혼이 물질과 다른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영혼은 여전히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영혼은 어떤 생명력과는 다릅니다.

플라톤의 이원론과는 달리, 영혼은 결코 영원하고 비물질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이성적인 영혼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단순히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들이 배열된 형태일 뿐입니다. 하지만 육체처럼 텅없는 존재죠. 일단 그 작고 매끄럽고 둥근 원자들이 육체에서 분리되면, 그것들을 서로 붙잡아 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확산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데이비드.

네. 네. 뭐든지 절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에피쿠로스에게서 그걸 꼭 배워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배워야 한다면 에피쿠로스에게서 배워도 좋겠죠. 아니, 쾌락주의에 대해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쾌락을 선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쾌락을 선 그 자체로 여기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선 . 결국 기독교 윤리는 모든 쾌락을 나쁜 것으로 여기는 금욕주의와는 거리가 멀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데모크리토스와 루키포스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고 말했죠. 네, 네. 그들도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세상이 실제로는 무작위적이고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네, 그들은 여전히 물질적 과정, 인과적 과정, 원자의 충돌과 같은 것들 의 결과로 발생하는 인과적 필연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무작위성이라는 요소가 있잖아요. 무작위성이나 불확실성이라는 요소에 주목해서 "아, 그게 바로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거야"라고 말하는 건 아마 실수일 거예요. 마치 자유가 그저 우연한 사건인 것처럼 말이죠.

수 있는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렇다면 누가 인과적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행위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물론 무작위성은 인과적 필연성이 없음을, 적어도 예측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하지만, 저는 행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주체가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무작위적인 행위도 여전히 인과관계의 일부입니다. 그 행위가 무작위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는 있지만, 인과관계의 사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20세기, 그러니까 1920년대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발견되었을 때, 존 듀이 같은 사람들은 하이젠베르크 원리를 받아들이고 "아, 이것은 인간의 자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죠. 에피쿠로스나 두크레티우스가 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분자 이하 수준 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행동에서든 , 특정 범위 내에서 관련된 두 입자의 방향과 속도를 모두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이젠베르크 원리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는 루크레티우스의 불확정성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에 실제적인 불확정성, 즉 실제적인 무작위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측정 장비에 알려지지 않은 영향이 있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단지 과학적 무지를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루크레티우스의 급변 현상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불확정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원인을 모르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인 키니코스 학파 와 스토아 학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소크라테스 학파로 돌아가서 키니코스 학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400년경에 활동했던 키니코스 학파에 대해서는 카우프만이 헬레니즘 철학자들에 대한 부분을 시작할 때 서문에 자세히 기술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잠깐, 제가 키레네 학파의 두 주요 인물이라고 했나요? 키네 학파의 두 주요 인물, 이름이 생각나지 않네요.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 안티스테네스와 디오게네스입니다. 안티스테네스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반문화 운동을 극단적으로 펼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방식을 완전히 거부하고 육조를 자신의 집으로 삼았다 . 조직화된 사회와 사회 제도를 모두 거부하고, 개인은 완전히 자급자족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생활 방식 때문에 그는 '개' 라는 동물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 그리스어로 개는 '쿠네(koune)' 이고, '키니코스 학파(Cynic)' 라는 단어는 바로 이 '쿠네' 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키니코스 학파는 말 그대로 '개처럼 살게 된' 셈입니다.

그들은 반문화적이고 반체제적인 생활방식 때문에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사실상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은 사회 밖으로 나와 바깥에서 살았습니다. 디오게네스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가 할 일이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그래, 빛에서 비켜서라"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권위자에게 보이는 태도였습니다.

내 빛에서 비켜. 햇빛에서 비켜. 길에서 비켜.

당신은 빛을 가로막고 있어요. 완전히 반체제적인 태도죠. 결국 키니코스 학파의 핵심적인 의미는 자연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우리에게 본래 맞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생각들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시대 아테네에서도 이미 존재했던 자연과 관습 또는 관례 사이의 긴장감을 드러낸다.

보시다시피, 푸시스(phusis)와 노모스(nomos)의 차이입니다. 노모스는 법이나 관습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본래의 성질에 기반한 윤리학, 즉 '본성상 이리이러하고, 본래상 저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의 모든 강조점은 자연에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또한 인간 본성의 세 가지 요소, 즉 영혼과 그에 따른 덕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니코스 학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졌지만, 다른 의미의 자연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개념을 단순히 그리스의 관습으로 여겼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목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특정한 덕목 들이... 그 이름들은,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여러 경우에 있어서 그리스 귀족의 미덕을 나타냅니다.

보시다시피, 웅장함은 미덕 중 하나입니다. 음, 그건 마치 고대 호메로스 서사시에 나오는 귀족들의 미덕처럼 들리네요.

보시다시피, 키니코스 학파는 이런 점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으로 돌아가 훨씬 더 단순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사회 구조의 복잡성 없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는 아테네 문화에서 분명히 형성되었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지 개혁하면서도 유지했을 뿐입니다. 개인은 내면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으며, 재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필요 없습니다. 결혼과 가족도 필요 없습니다. 완전한 독립이 필요합니다.

'냉소주의자'라는 용어가 오늘날 우리에게 다소 다른 의미로 전해져 왔다는 것을 알아차리셨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르면서도 비슷하죠. 그 유사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기존 방식에 대해 냉소적인 사람을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네. 기존의 믿음에 대해 냉소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냉소주의자를 볼 수 있죠.

하지만 고대 키니코스 철학자들은 보다 긍정적인 대안을 옹호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급자족하는 개인, 아주 단순한 자연적 삶으로의 회귀를 주장했던 것이죠.

문화적 허례허식을 배제하고 생각해 보면, 근본적인 질문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겪는 문제들이 문화의 산물인지, 아니면 인간 본성을 포함한 자연의 산물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의 문제점을 인간 본성의 산물로 보았고, 따라서 이성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반면 키니코스 학파는 문제점을 문화의 산물로 보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키니코스 학파는 자연이 우리를 문화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문화가 우리를 본성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드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음, 그런 키니코스 학파의 영향이, 말하자면, 도덕적 출발점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후 스토아 학파가 이를 계승했습니다. 결국 스토아적 태도에 대한 강조였죠. 불편함에 초연하고 자급자족하는 태도 말입니다.

그런데 스토아 철학을 탄생시키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단순히 키니코스 윤리학만이 아니 었습니다 .

키레나이코스 학파가 합쳐져 에피쿠로스 학파를 낳은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

이해했나요? 그럼 헤라클리토스는 어땠을까요? 헤라클리토스는 양면성을 가진 사상가 중 한 명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겠죠? 자연에는 능동적인 면과 수동적인 면 ,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

질서가 있고 , 변화가 있다. 질서 있는 통일성을 부여하는 로고스 구조가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모습을 바꾸는 불타는 증기의 세계가 있다.

두 번 다시 똑같은 수는 없다. 본질적으로 스토아학파 는 헤라클리토스를 받아들인다. 우주론은 형이상학이다.

우리는 변화의 순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여 산산이 조각나는 격렬한 파괴의 시기가 있고, 그 후에는 서서히 재건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모든 우주적 변화의 순환 과정 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질서 원리입니다.

헤라클리토스가 말한 건 , 맞아, 로고스야. 로고스. 이거 봐.

초기 교회는 스토아 철학의 로고스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서 그 용어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몇 주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스토아 학파 자체는 꽤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논이라는 인물이 대표하는 초기 스토아 학파 운동이 있었습니다.

클레안테스와 크리시포스. 이들은 초기 그리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었다.

기원전 3세기의 초기 그리스 스토아 학파가 있었고, 그 후 수백 년 동안 중간기를 거쳤으며, 그 후 로마 스토아 학파가 번성했습니다.

세네카와 에픽테토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관여했던 로마 스토아 철학.

그리고 키케로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키케로의 정치철학과 법철학 저술 덕분이죠. 로마 법학의 형성과정은 당시 로마법 전통 전체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후 스토아 철학은 중세 시대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중세와 근대의 정치 및 법철학은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스토아 철학은 긴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흔히 세 부분으로 나뉜다. 3세기, 그리스에서 시작된 스토아 철학의 역사.

동화 작용이 진행되던 중간 시기가 있었고, 그 후 로마 시대, 즉 서기 1~2 세기가 이어졌습니다.